

SPECIAL
SUNDAY



세계성찬주일

헌금 전 이야기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세계성찬주일

헌금 전 이야기



연합감리교인들은 다른 교단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세계성찬 주일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교단이 하나임을 기억하고, 모든 기독교인이 일치와 평화의 정신으로 연합하기 위해 193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많은 교회가 동참하는 세계성찬주일 특별 헌금은 장학금, 훈련, 멘토링을 통해 전 세계의 우수 학생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세계성찬 주일 헌금은 매년 교단적으로 행해지는 여섯 개의 특별선교헌금 중 하나입니다.

본 예배 자료를 각 교회의 세계성찬주일 예배에 맞게 바꾸어 활용하세요. 아래에 수록된 기도 문들은 마가복음 10장과 시편 8편의 성경 구절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함께 제공된 어린이 설교 자료, 예배 자료, 설교 자료를 통해 예배의 모든 부분이 한 흐름 안에 있게 하세요. Resource-UMC.org/WCS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가복음 10:16

오늘 우리에게도 젊은 학자들을 안고 축복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세계성찬주일 특별 헌금은 전 세계의 연합감리교 학생들의 장학 기금 조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을 안아 주셨던 분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이 삶의 목적을 갖게 해 주고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분들이 계셨나요? 오늘 여러분은 청년 지도자들의 미래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게렛 오즈머(Garett Ozmer, [전체 이야기](#))는 5학년 때 학교에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간질 판정을 받았고, 발작으로 인해 말을 더듬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자신의 질병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헌금 전 이야기

다. 그가 받은 보살핌 덕분에 그는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추구하는 과정 중에 게렛은 감사하게도 세계성찬주일 특별 헌금이 후원하는 소수민족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된다는 것은 결코 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느꼈던 두려움과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믿음은 언제나 제가 받은 것을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돌려줘야 한다고 도전해 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클레버 리자도 데 아시스 (Cleber Lizardo de Assis)는 브라질의 벨로 오리존테의 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리버데이드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Juventude Ao Extremo 라는 청소년 단체와, Sombra e Agua Fresca 라는 6-14세 연령의 이민 가정 자녀들을 위한 단체, 또 노년층을 위한 기관인 Third Age 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세계성찬주일 장학금은 그가 브라질 오리존테의 한 대학에서

심리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그는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철학 분야에서 박사 후 연구 과정을 밟았습니다. 심리학, 신학, 철학과 더불어 사회응용학문을 가르치는 그는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 그의 전공 분야 교사들의 훈련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 거리의 어린이, 전과자, 약물 중독자, 토착민, 여성, 노년층과 같이 종종 소외된 집단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성찬주일 장학금은 제게 고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지역사회를 위한 제 사역을 지속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회적 변화를 이루려 하는 제 소명을 확장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세계성찬주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 된 것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세계성찬주일 예물이 전 세계의 연합감리교인들의 헌신과 결합할 때에 더욱 그렇습니다.



세계성찬주일

헌금 전 이야기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함께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14).

우리가 젊은 학자들과 나누는 예물은 그들이 믿음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세계성찬주일 장학생인 이베스 무카나 키낭와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제 교수님 한 분이 알려주신 교훈을 기

억합니다. 그분은 영생은 우리 각자의 변화를 통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며, 우리는 매사에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세계성찬주일 특별헌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을 바꾸는 전 세계의 재능 있고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돕습니다.

아낌없는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